

# 중국의 모란문양 연구

김 재 임 · 박 춘 순\*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 A Study of Chinese Peony Pattern

Jae-Im Kim · Chun-Soon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fer the shape and change as auspicious symbolic meaning and figures of a peony pattern. For this study, I analyzed the example of a peony pattern, which is traditional Chinese pattern appeared on a ceramic and texti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a peony has particular title, such as 'the king of flowers(花王)' and 'the most beautiful woman in country and the smell in heaven(國色天香)' originated in a verse of a poet at Dang's Dynasty. It is reputed to be the best of all flowers, representing beauty, and a beauty.

Second, the basic meaning of a peony pattern used as auspicious pattern is prosperity and it has various meanings of it's similar kind through several auspicious objects and combination. Also, it was used for the purpose of adequating the desire of man's blessing mentality.

Third, four kinds of characteristics of a peony pattern are as following.

- 1) A peony pattern has similar shape with 'Bosanghwamoon(寶相華紋)', which was used as a pattern at formerly period of peony flowers. It was used as realistic shape gave vividness to the characteristic of peony on the shape of 'Bosanghwamoon'.
- 2) 8-petaled, unique leaves and veins were described in detail by vivid sketching shape of real peony flower.
- 3) Laying stress on the characteristics of peony flower, which is large and magnificent, several folds petals were described abundantly by exaggerated shape or a shape of big honeycomb. And unique leaves were described realistically on these.
- 4) It was also expressed peculiar characteristic of peony flower composed of several pieces by weakened

design shape.

Key Word : 문양(무늬), 모란문양, 중국문양

Pattern, Peony pattern, Chinese pattern

## I. 서 론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생활용품들은 실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용도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환경을 장식하는데도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러한 경향이 강해져 많은 제품들이 실용만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과의 조화나 장식을 함께 생각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구나 기타 생활용품들은 수납이나 보관 등이 그 실질적인 목적임에도 여러 가지 무늬를 이용하여 표면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제품을 화려하게 하는 등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고 변화로운 장식을 가하고 있다.

무늬란 물건의 거죽에 여러 가지 형상이 어우러져 이룬 모양을 말하며 문(文), 문(紋)으로 쓰여진다. 문(文)은 글자(書契), 꾸밀(飾), 아름다움(美), 빛날(華), 아름질(斑), 문채(文彩) 등을 뜻하고, 문(紋)은 무늬(織文) 또는 문채를 뜻하여, 앞의 것은 문화적인 것으로 인간의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이고, 뒤의 것은 문명 즉, 외적·물질적 소산이라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sup>1)</sup>. 즉 무늬는 다른 표현으로 모양, 문양(文樣) 또는 문양(紋樣)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이 모든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紋樣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문양은 미적 폐감을 일으키도록 어떤 것을 장식하는 점·선·면 및 그 종합으로 된 형상, 혹은 형상이나 색에 의하여 구성, 배열된 圖樣<sup>2)</sup>이며, 장식적

조형물의 한 종류로, 장식으로서의 문양이란 어떤 대상물에 미적 효과를 주고, 발휘시켜, 그것을 加增 또는 강화하기 위해 부가되는 어떤 형상으로, 장식 표현의 중요한 한 수단이며, 대상물에 의미를 주는 존재<sup>3)</sup>이다. 또한 장식표현의 중요한 한 수단<sup>4)</sup>이라고 정의하며, 장식문양이 갖는 성격인 인상은 그대로 대상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진다<sup>5)</sup>.

장식을 위해 사용된 문양은 그 대상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만, 항상 부수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장식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본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채색이나 문신 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채색이나 문신은 장식 그 자체가 우선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장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필연인 것이다.

이러한 문양은 아무리 단순한 것이라도 그 대상의 표면에 생기를 주는 성질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장식문양의 가장 기본적 의미이다. 문양이 있는 표면은 그렇지 않은 표면에 비해 눈을 강하게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며, 인상을 심어준다. 장식문양은 표면에 붙여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대상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장식문양이 주는 성격인 인상은 그대로 대상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문양은 이렇게 해서 대상 그 자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문양은 여러 종족과, 민족 또는 文化的 성격 및 시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문양연구에는 문양의 조형적 의미를 읽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문

1) 『한국의 무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2) 『服裝大百科事典』下卷, 文化出版局, 1983. p.455.

3)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p.140.

4) 山名邦和, 『衣生活文化』, 源流社·東京, 1992. p.130.

5) 谷田闇次·石山 彰, 『服飾美學·服飾意匠學』, 光生館, 1983, p.63.

양에 분류의 명칭을 드는 것은 의미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涡文이라 해도, 그 涡文의 조형적 표현은 제작한 민족,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인식하고 뜻을 읽는 것이 절실히다<sup>5)</sup>. 이러한 문양의 변화는 시대나 사회,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의 수요공급, 기술의 진보·쇠퇴 등이나 색채의 원료 등의 조건들에 의해 좌우된다.

예로부터 동양에서 사용되었던 전통문양은 크게 자연들과 幾何文으로 나뉘고, 자연물은 다시 植物紋과 動物紋, 그리고 人物紋으로 나뉘어지는데, 대표적인 식물문양으로는 蓮花·牡丹·菊花·梨花·梅花 등을 들 수 있다.

고대 文樣史를 볼 때 아름다운 생명감을 갖는 식물이 등장하지 않은 예는 없다. 그것은 그리스나 이집트의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등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動物文이 植物文보다 먼저 조형화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있다. 중국의 文樣史에서 六朝이전의 장식문양은 대부분 동물계문양이 차지하여 교묘한 기술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식물계 문양의 본격적인 출현은 결국 六朝에 이르러 東漸한 서방계 唐草의 전개까지를 기다려야 한다.

식물문양 중에서 花卉문양은 가장 늦게 나타나며, 그 종 모란문양은 唐代의 「簪花仕女圖」를 비롯한 그림이나 白居易의 詩「惜牡丹花」<sup>7)</sup>를 비롯한 문학작품<sup>8)</sup>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어. 본 논문은 여기에 주목하여 모란이 문헌에 등장한 시기와 문양으

로서 사용된 시기 및 사용 예와 그 형태의 특성이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란이란 이름은 唐玄宗의 貵妃를 노래한 이백(李伯)의 清平調<sup>9)</sup>에서 나온 것이라 하는데, 唐 현종이 양귀비와 함께 沈香亭에 심어진 모란꽃을 보고 李伯에게 시를 지어보라고 명했을 때 양귀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지은 것이다. 즉 '구름을 보면 貵妃의 의상을 상상하고, 모란을 보면 貵妃의 容姿를 생각한다' 하여 양귀비의 미모를 모란에 비유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인을 일컬어 활짝 핀 모란과 같다고 하게 된 것이다.

新唐書 地理志에 巴川郡에서 황제에게 모란을 바쳤다는 기록으로 보아 唐현종이 모란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劉禹錫의 시와 『群芳譜』에 모란이 등장하고 있어 唐代의 사람들이 모란을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란은 그 색과 향기와 운치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역사상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찬미하여 唐詩에서는 모란을 '佳名喚作百花王'(皮日休의 작품으로 모든 꽃 가운데 왕이라는 의미)이라 하였다.

周敦頤의 '愛蓮說'중에도 '牡丹花之富貴者也'<sup>10)</sup>라고 하여 그 名句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百花之王'·'富貴花'도 모란을 찬미하는 별칭이기도 하다.

唐朝의 사람들은 모란을 사랑하여 모란이 滿開하는 계절이 되면, 牡丹盛會를 열어 장안사람들이 모두 나와 미친 사람처럼 취했다고 한다<sup>11)</sup>는 기록과

6) 長廣敏雄, 『中國美術論集』, 講談社, 1984, p.105.

7) 佐久節, 『白樂天全詩集』卷14, 日本圖書センター, 1978, p.400-401.

惆悵階前紅牡丹 晚來唯有兩枝殘 明朝風起應吹盡 夜惜衰紅把火看(밀줄 글쓴이)

8) '微之宅殘牡丹', '白牡丹', '牡丹芳 美天子憂農也' 등등 모란을 주제로 한 시가 많다.

9) 김달진 편, 『唐詩全書』, 민음사, 1987, p.218-219

垂相木裳花想空 春風拂撲綵華濃 若非群玉山頭見 會向瑤臺月下逢

10)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사, 1992

予獨愛蓮之出淤泥而不染 濡清蓮而不夭

矛謂菊花之隱逸者也 牡丹花之富貴者也 蓮花之君子者也(밀줄 글쓴이)

11) 王孝廉, 앞의 책, p.10-13.

劉禹錫 시에도 모란이 피면 경성이 움직인다<sup>[12]</sup>고 하여 唐代의 모란취향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또 唐代詩人인 李正封이 『詠牡丹』詩中 “國色朝酣酒, 天香夜染衣.” 深得唐玄宗贊賞, 後人即稱牡丹爲 “國色天香”이라 풀어 국색천향(國色天香)이라 는 명칭을 갖게 되었고, 모란의 아호가 되었다. 新唐書 地理志에 巴川郡에서 玄宗에게 모란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 당 황제는 극히 모란을 賞讚하였다 고 한다. 모란은 특유의 富麗花貴로 중국 전통의식 중에 繁榮昌盛 · 幸福 · 和平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모란은 「三國遺事」의 善德女王조에, 당시 당태종이 흥색·자색·백색의 모란꽃 그림과 씨앗 서 데를 보내왔다고 적고 있다<sup>[13]</sup>. 그리하여 통일신라시대의 암마새기와에 모란꽃을 도안화한 賢相華무늬가 많이 나타나며, 고려이후에는 청자 등 의 여러 공예의장에 성행하였고, 조선시대 백자나 분청사기에도 사실적 혹은 도안화된 형태 등 여러 가지 모습의 모란무늬가 새겨져 있다.

일본에서는 唐代의 모란감상 유행이 聖武天皇 (724-748) 시대인 奈良朝의 唐모방시대에 유입되어 奈良에 이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奈良시대의 모란재배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문헌에 나타난 것은 平安時代 이후라고 한다. 奈良시대의 모란문양은 실물의 사생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공예품 등에서 중국문양의 것을 복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sup>[14]</sup>.

이렇듯 모란은 한국, 중국, 일본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전통적인 식물문양의 하나로 그 응용이 가장 많고, 연꽃과는 달리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愚意와 길상적 의미가 강하여 다른 자연물들과 조합되어 여러 가지 대상에 施紋되고 그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통문양연구에서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과 물자료를 이용해서 모란이 꽃 중의 왕이 된 현상을 기술하고, 전통문양 중 陶磁와 직물에 나타난 모란도안의 발생과 대상에 따른 특징과 변화 등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寓意로서의 모란을 모란길상도안의 구성 및 그 상징의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제한점은 陶磁와 직물이라는 일부의 공예품만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과 직물이 쉽게 부패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록 실존 유물의 예가 적어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문헌과 圖錄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관찰대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분청사기 목단문양에 대하여(김정숙, 1972)<sup>[15]</sup>에서는 분청사기애에 나타난 모란문양의 형태를 기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象嵌文에서는 도안화된 형태, 剃地紋에서는 약화 또는 변형을 일으킨 형태, 그리고 彫花文에서는 추상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모란은 역시 부귀와 관련된 우의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길상문양에 관한 연구(강순희, 1975)<sup>[16]</sup>에는 조선시대 의복과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나는 길상문양과 각 문양들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는 바, 모란문양이 모란이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2) 龍矛 · 陳雨石 · 洪炳坤 편, 『中國歷代貢品大觀』, 上海社會科學院出版, 1992, p.279.

13) 일연, 이재호 역, 『三國遺事』, 솔, 1997, p.164.

唐太宗送薔薇牡丹 三色紅紫白 以其實三升 王見薔薇花曰 此花定無香 仍命種於庭 待其開落 果如其言

14) 溝口三郎 編, 『日本の美術』9, -No.29, 文様-, 1968, p.36.

15) 김정숙, 『분청사기 목단문양에 대하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16) 강순희, 『조선시대 길상문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이조시대 민예품에 나타난 목단문양 연구(안동숙, 1980)<sup>17)</sup>에서는 모란문양이 민화, 능화판, 도자기 등에 쓰여 부귀의 상징으로 길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혼식 등에 쓰이는 병풍에 도식화된 형태로 나타났고, 도자기에는 윤곽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꽃의 아름다움과 형태가 문양화에 좋은 소재가 되고 빛깔이 화려하고 고왔기 때문으로 밝혔다.

목단문양에 대한 고찰(이영란, 1980)<sup>18)</sup>에서는 직물, 목칠, 도자기, 금속 등에 쓰인 모란문양은 조선조문양을 대표하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란이 부귀의 상징인 길상문양으로 다른 문양과 복합되어, 그리고 도식화된 형태로 표현되었다고 하고 있다.

상징성을 중심으로 본 중국용단의 문양 연구(한은혜, 1984)<sup>19)</sup>에서는 모란문양을 부귀한 기품과 부의 상징이며 또한 사랑과 호의의 상징이라 하였고, 회소식을 가져다주는 使者의 상징이라 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 왔다고 한다.

분청사기 문양의 상징성(홍찬효, 1993)<sup>20)</sup>에서는 모란은 화목한 가정을 의미하는 길상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모란에 넝쿨이 결합하여 부귀, 출세, 명예 등의 기원을 의미하였다. 또한 모란문양은 민간신앙요소로서 현실적인 기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양의 주제분류를 통한 변천연구(박영진, 1993)<sup>21)</sup>에는 모란은 부과 고귀함을, 그리고 봄을 상징한다 하였다. 공주의 의복에 문양으로 사용되었으며, 결혼식 예복에 모란을 수놓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단문양에 대한 고찰(이순자, 1985)<sup>22)</sup>에는 중국·한국·일본의 도자기와 직물 및 공예품에 나타나는 모란문양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우리 나라의 모란문양이 대상이 되어 진행되었거나 그 施紋대상 또는 국가별 비교가 이루어져 있어 시대적 차이점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은 중국의 도자기와 복식에 사용된 모란문양을 그 의미와 각 시대에 따른 형태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III. 중국의 모란

모란은 중국이 원산지로, 1929년 梅花가 國花로 지정되기 이전에 줄곧 중국을 대표하는 國花로 富貴花·洛陽花·國色天香 등의 명칭으로 불려졌다<sup>23)</sup>.

즉 모란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落葉灌木의 하나로 천황의 꽃이라고도 하며, 照先草·隣草·名取草·二十日草·深見草·富貴候라고도 한다. 원래 모란은 毛茛科 莎草屬으로 잎은 羽狀複葉이고, 꽃은 아름답고 크며, 관상용으로 제공되며, 뿌리는 약용으로, 꽃잎은 食用으로 공급된다. 서고(鼠姑)·녹구(鹿韭)·백량금(百兩金)·목작약·화왕(花王)이라 하고 있다.

本草에 釋名은 서고(鼠姑)·녹구(鹿韭)·백량금(百兩金)·목작약·화왕(花王)이라하고, 時珍은 모란은 색이 丹한 것을 上으로 하고, 씨를 땂지만 뿌리에서 생성하는 것이므로 모란이라 한다. 唐人은 목작약이라 하고, 그 꽃은 작약과 닮았다한다. 꽃무리 중에서 모란이 제일, 작약이 第二라 하여 宿幹에서 모란은 花王이라, 작약은 花相이라 하고 있다<sup>24)</sup>.

17) 안동숙,『이조시대 민예품에 나타난 목단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18) 이영란,『목단문양에 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19) 한은혜,『상징성을 중심으로 본 중국용단의 문양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20) 홍찬효,『분청사기 문양의 상징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21) 박영진,『한국문양의 주제분류를 통한 변천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22) 이순자, 목단문양에 대한 고찰-중국·한국·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vol.10, 1985

23) 王孝廉, 앞의 책, p.10-13.

24) 諸橋轍次,『大漢和辭典』卷七, 大修館書店, 1958, p.627.

모란은 이 외에도 洛陽花·貴客·醒酒花·富貴花<sup>25)</sup>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모란은 '牡(수컷모)'와 '丹(붉을 단)'이 합쳐져 된 한자어이다. '牡丹'이 유음화하여 '모란'으로 발음된다. 목작약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모란이 작약과 비슷하고 木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란은 꽃중의 王이라는 의미에서 花王이라 하고, 작약은 모란 다음이라는 의미에서 花相이라고 한다<sup>26)</sup>.

중국에서의 모란의 재배는 盛唐무렵부터 유행하여, 詩歌로 읊어진 것이 많다. 특히 唐代 開元天寶의 盛唐以後 매년 4월이 되면 “꽃이 피고 지는 20일간, 성의 모든 사람은 모두 미치광이가 된다.”고 하여 당시 귀부인들이 거리에서 모란을 사는 정경을 그린 것이다. 또한 한 다발의 모란꽃이 10집의 세금과 맞먹는 만큼의 값을 지녔었다<sup>27)</sup>.

『箋注倭名類聚抄』에 隋帝가 西苑을 지어 花卉를 모을 때, 易州에서 20상자의 모란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는데<sup>28)</sup>, 이를 볼 때 모란은 隋에서 唐에 걸쳐 매우 진귀한 것으로 관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란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화왕'을 비롯해, '국색천향'·'부귀화'·'낙양화' 등의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모란은 그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상징성을 지녀 길상도안으로 사용되었다. 길상도안이란 중국민간에 유행하는 일종의 전통장식문양으로, 어떤 자연물상의 寓意나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것 혹은 文字附加 등의 형식

을 통하여 아름다운 願望과 추구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길상의 뜻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國色天香이라는 별칭을 갖는 모란은 “부귀”를 상징하는데, 이 부귀도안은 화려한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기복심리추구에도 적합하여, 중국에서 일반서민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모란이 부귀를 상징하게 된 것은 周敦頤의 '愛蓮說'에 "矛謂菊花之隱逸者也 牡丹花之富貴者也 蓮花之君子者也"가 있어 이후로 모란을 부귀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모란은 단독으로 사용되어 모란이 갖는 의미를 독자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길상문과 조합하여 모란이 갖는 의미와 함께 조합된 각 길상문들의 의미나 이미지가 더해져 부귀계열의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富貴如意·富貴長春·富貴壽考·富貴因緣·富貴平安·富貴萬代 등을 상징하며 병풍이나 책거리 등 여러 용도에 사용되었다.

먼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모란의 아름다움을 형용하는데 후세에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國色天香). 또 최고의 관직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축원하는 의미를 갖는다(官居一品).

또한 다른 사물과 조합되어 보다 복합적인 의미와 상징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모란과 조합되는 것은 동·식물, 기타물로, 각각이 상징하는 바와

25) 嚴雲鶴 編, 『事物異名典林』, 全省各大書局, 1973, p.534-535.

牡丹 一名 貴客-- 花譜曰, 牡丹爲貴客

又名 洛陽花-- 草芳譜曰, 唐宋時, 洛陽之花爲天下冠, 故牡丹竟名洛陽花. 類函曰, 武后詔遊後苑, 百花俱開, 牡丹獨遲, 遂貶於洛陽, 故洛陽牡丹冠天下. 劉邠芍藥譜序曰, 洛陽牡丹, 廣陵芍藥

又名 醒酒花-- 太真外傳曰, 明皇與貴妃幸華清宮, 因宿酒初醒, 凭妃子肩同看木芍藥, 親折一枝, 與妃子遞嗅, 曰, 不惟 莳草忘憂, 此花香豔, 尤能醒酒. 據異記曰, 陰元中, 禁中初重木芍藥, 卽今牡丹也.

又名 富貴花-- 周敦頤愛蓮說曰, 牡丹, 花之富貴者也

26)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사, 1995

27) 王孝廉, 앞의 책, p.10-13.

28) 渡邊素舟, 『東洋文様史』, 富山房, 1975, p.584.

모란의 의미가 조합되어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다.

동물과 조합되는 경우로 먼저 사자를 들 수 있다.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해졌다고 하는데, 사실적인 모습이 아닌 灵獸적인 것이 되어, 魔除的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sup>29)</sup>. 이러한 의미를 갖는 사자가 꽃 중의 왕인 모란과 함께 묘사되어,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상징한다.

또 佛說에 의하면 사자는 佛母의 三形으로, 모란을 사랑하고, 이것을 먹으며, 胎藏界曼荼羅의 緣은 반드시 모란 내지 사자로 장식된다<sup>30)</sup>. 사원에 모란의 재배가 많이 보이는 것은 이러한 사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양이를 모란과 함께 배치하여 부귀를 누리는 것을 나타낸다(正午牡丹). 고양이의 눈동자는 정오 무렵에 가늘어져 막대기 같아진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시계가 12시를 가리킬 때와 같다고 한다. 따라서 정오가 가장 왕성한 시각이고 이 때의 모란은 꽃이 활짝 필 때이기 때문에 부귀가 활짝 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sup>31)</sup>.

모란은 또한 고양이, 나비와 함께 구성하기도 하는데(富貴耄耋), 고양이 苗(苗)는 모(耄)와 동음이기 때문에 장수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영혼의 運搬者, 생명의 부활, 再生<sup>32)</sup>의 이미지를 가지며, 사랑·행복한 결혼을 상징하는<sup>33)</sup> 나비(蝶)는 절(耋)과 동음으로 사용되어 역시 장수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나비와 고양이는 똑같이 장수를 의미하게 되고, 이를 다시 모란과 함께 하여 역시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므로 부귀를 누리며 장수하기를 기원하

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다.

또 봉황과 모란을 조합시키는 경우로(鳳戲牡丹), 烏類의 유품인 봉황은 墓聞樂見의 길상문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모란을 함께 조합시킴으로써 행복한 생활, 또는 광명과 행복을 상징한다<sup>34)</sup>.

활미새(白頭翁)를 모란에 함께 배치하면 부부가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해로함을 상징하는 것이며(白頭富貴)<sup>35)</sup>. 수탉과 함께 구성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이름을 날리고 부귀를 누리기를 축원하는 의미를 갖는다(功名富貴). 수탉(公鶲)의 공(公)은 공(功)과 동음동성이며, 닭은 울음으로 새벽을 알리는데, 여기에서 울다(鳴)와 명(名)은 동음동성이다. 따라서 닭은 곧 벼슬과 의미를 같이한다고 여겨 벼슬길에 올라 이름을 얻는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sup>36)</sup>.

다음으로 식물과 결합시킨 경우로, 먼저 모란을 장미나 복사꽃과 함께 배치하는데(富貴長春), 장미는 매달 꽃을 피우기 때문에, 또는 사계절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수를 의미하여 장춘화(長春花)라 일컬게 되었다<sup>37)</sup>.

모란이 덩굴풀(富貴萬代)이나 영지(蔓草형태)와 조합(貴壽無極)되기도 하는데, 부귀영화가 萬代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덩굴풀(蔓草)이 모란을 감고 올라가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만(蔓)은 만(萬)과 동음동성이고, 또 만(蔓)이 대(帶)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다시 대(帶)는 대(代)와 동음동성이기 때문에 만대(蔓帶)는 만대(萬代)와 뜻이 서로 같이 사

29) 三杉隆敏,『海のシルクロード』-中國陶磁器の海上運輸と染付編年の研究- 恒文社, 1976, p.250.

30) 尚學圖書・言語研究所編,『文樣の手帖』, 小學館, 1993, p.18-19.

31) 北京市中國圖書出版,『吉祥圖案』, 1986, p.181.

32) 中村公一, 앞의 책, p.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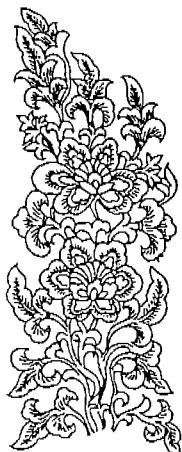
33) 李祖定, 앞의 책, p.18.

34) 李祖定, 앞의 책,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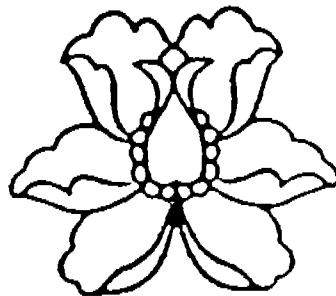
35) 李祖定, 앞의 책, p.138.

36) 李蒼彥 編,『中國吉祥圖案』, 萬里書店有限公司・輕工業出版社, 1988, p.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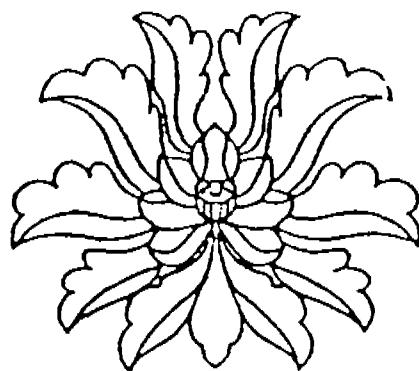
37) 李蒼彥 編, 앞의 책, p.143.



(그림 1)  
前蜀王建墓의  
門扉飾金具花唐草



(그림 2) 唐代의 牡丹文



(그림 3) 唐代의 寶相華文

사과를 함께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란을 꽂은 꽃 병 옆에 두는데(富貴平安), 사과(蘋)는 평(平)의 발음이 유사하고, 평(平)과 병(瓶)은 동음동성이다. 따라서 사과는 곧 평안을 의미하고, 모란과 함께 둘 으로써 부귀와 평안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sup>39)</sup>.

이 외에 水仙花나 海棠花, 芙蓉, 玉蘭(목련) 등을 함께 두어 지위를 구하거나,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祈福적인 우의를 갖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花卉圖나 花鳥圖에 들을 함께 구성한다. 이는 꽃이 아름답지만 脆弱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들을 더함으로써 花卉圖나 花鳥圖는 불사의 활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약한 이미지를 지닌 것을 강하고 영원한 힘을 가진 것으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들을 더해주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모란은 각 사물이 갖는 이미지와 더 해져 영화·평안·창수를 기원하는 길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8) 李祖定, 앞의 책, p.164.

39) 李若彥 編, 앞의 책, p.137.

40) 李學英·舒彤 編著, 『中國傳統圖案賞析』, 河北美術出版社, 1992, p.178.

41) 度邊素舟, 앞의 책, p.586

#### IV. 중국의 모란문양

중국에서는 등·식물문과 기하문, 인물문 등의 문양들이 각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그 가운데 모란문양은 前蜀시대의 王建墓 門扉飾金具花唐草에 사용된 예가<sup>40)</sup> 처음으로 보이며 (그림 1), 본격적으로 문양으로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寶相華문양이 쇠퇴할 때였다고 하므로 宋代에서 元代에 걸쳐 성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화가 성행했던 唐代에도 모란문양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sup>41)</sup>. 예로서 唐代에 사용되었던 모란문양의 도안(그림 2)은 보상화문양(그림 3)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宋代에는 『營造法式』에 華文의 하나로서 '牡丹華'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 모란이 문양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같은 책 권 제14 「彩畫作制度」 제 2項 「五彩徧裝」에 "華文有九品 一曰 海石榴花, 寶牙華, 太平華之類同 二曰 寶相華, 牡丹華之類同 三 蓮荷華"가, 그리고 권 제12 「彫木作制度」 2項에 「彫插寫生畫」에 "彫插寫生華之制有五品 一曰 牡丹華, 二曰 芍藥華 三曰 黃葵華 下略"이 있어 宋



(그림 4) 髢花仕女圖(부분)

代의 예술의 장에 牡丹華가 문양으로 화화 뿐 아니라 모든 재료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란이 머리장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문양으로서가 아니라 戴花형태였다. 그 대표적인 예는 앞서 언급했던 唐代의 「簪花侍女圖」(그림 4)를 들 수 있는데, 簪花란 꽃을 머리에 얹어 장식하는 것, 또는 祝宴時 머리에 꽂는 꽃을 말한다<sup>42)</sup>.

簪花仕女圖는 궁정귀부녀를 묘사한 것으로, 長裙, 外衣와 被帛을 착용하고 잠화한 다섯 귀부인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모란꽃을 꽂고 한 손에는 拂子를 들고 긴 옷을 착용하여 優美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의 귀부인은 紅花를 얹고 있으며, 세 번째는 연꽃을 꽂고

목에는 雲紋의 굽목걸이를 걸고 있고, 마지막의 귀족부인은 작약을 꽂고 한 손에는 한 마리의 나비를 들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꽃은 모란·홍화·연화·海棠花·작약 등인데, 이 다섯 종류의 꽃 가운데 모란이 제일 먼저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唐代에 모란화가 가장 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簪花는 唐代뿐 아니라 宋代에도 실재의 모란·작약으로 또는 비단(羅帛)을 이용해 만든 꽃을 부녀자의 머리에 얹고 다니는 것이 유행하였고, 이 시기에는 남자들도 머리에 길상의 의미로 꽃을 얹어 이를 簪花또는 '簪戴'라 일컬었다<sup>43)</sup>(그림 5).

清代에도 역시 簪花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清朝를 세운 滿族과 漢族이 서로 달리 나타났고, 中期에 이르러서부터 한족의 여성이 만족 궁녀의 것을 모방하게 되어 高髻를 하게 되었다<sup>44)</sup>.

## 1. 唐代

### (1) 陶磁에 나타난 모란문양

唐代는 중국도자예술을 대표하는 唐三彩기법이 성행된 시기로, 唐三彩란 黃·綠·白·藍·赤·褐 등 여러 유약을 동시에 한 대상의 표면에 섞어 발라 화려하고 기이한 효과를 낸 것이다<sup>45)</sup>. 따라서 이 시



a. 麥積山五代壁畫進香婦女花冠復原圖



b. 女孝經圖



c. 宋墳刻雜劇人丁都賽所戴花冠

(그림 5) 宋代의 簪花

42)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1958

43)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上)」,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p.265.

44) 華梅, 「中國服裝史」, 天津人民美術出版社, 1989

45) 「世界의 文樣II」(中國), 尚美社, 1975, p.50

기는 색이나 유약에 의한 색변침, 또는 훌려내림 등 우연한 효과에 의한 장식이 문양에 의한 것보다 많아 모란이 문양으로 사용된 예는 극히 드물다.

또한 唐代는 보상화를 가장 아름답고 천형적인 도안으로 생각하였고, 李昇陵의 벽화장식에 있는 모란당초가 모란문양의 초기 형태로 보상화문의 형식 즉, 中·晚唐의 海石榴나 보상화는 모란애호의 풍조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문양화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도자에 나타나는 모란문양은 모란의 특성을 살려 꽃잎의 수와 형태, 그리고 잎의 형태를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거나, 꽃잎의 수는 사실적으로 하되 그 형태는 다소 단순, 변형시키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 시기는 보상화문이 성행했던 후이기 때문에, 더 복잡한 형태를 갖기도 한다.

唐三彩刻花枕의 모란은 사실적이고 꽃술을 강조한 형태이며, 또 다른 唐三彩刻花枕의 모란 역시 꽃잎의 수는 실재와 같이 하고, 꽃술표현도 자세하게 하였으나 잎모양은 부풀린 형태로 장식성이 강하다 (그림 6).

접시 등에 사용되었던 모란문양은 꽃잎을 화려하게 날날이 표현하고 잎모양도 약간 변형된 형태로 표현하여 보상화의 일면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도자 외에 기와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문양들 가운데 연화와 모란문을 비교하면, 연화의 경우는 꽃잎의 끝을 뾰족하게 표현하였고, 모란

은 둥근 형태로 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모란문양은 원안에 꽃잎과 꽃술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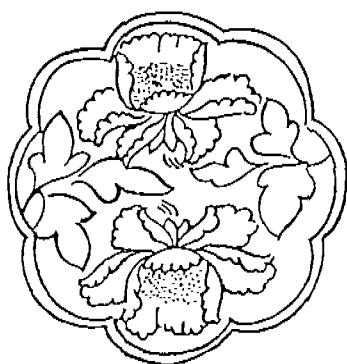
## (2) 직물에 나타난 모란문양

중국은 견의 발전에 의해 殷시대부터 직조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직물을 사용했으며, 周시대에 갖가지 색깔의 실을 이용하여 무늬를 넣었다. 漢代에는 세밀한 짜임이나 얇은 직물이 생기고 色絲가 풍부하여 자수가 발달하였고, 도안도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唐代에는 외국과의 교역으로 다양한 종류의 직물이 제작될 수 있었다.

모란의 형태는 다양하고 千變萬化해서 직물문양에 적합하여 비단조각에서 사용된 예를 볼 수 있는데, 牡丹紋錦에 있는 唐代의 모란은 원형으로 표현하고, 꽃잎은 마치 불상의 座臺로 쓰이는 연꽃잎처럼 표현하였다.

사실도안으로서 이미 상당히 숙련된 상태의 모란문도 있는데(그림 7), 겹쳐진 꽃잎의 표현과 정면에서 본 듯한 꽃잎과 함께 파여 들어간 잎새모양도 사실적이다. 花鳥紋錦에는 보상화를 중심으로 모란을 대칭적으로 구성하였는데, 여기에 보이는 모란도 둥근 원형의 꽃잎과 약간 변형되었지만 파여 들어간 잎은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어 唐代의 모란문양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花樹對羊錦에는 모란을 중심으로 두 마리의 양과 그 주위의 나비를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구



(그림 6) 唐三彩花枕文様



(그림 7) 唐代 牡丹文(綾片)

성하였다. 역시 모란은 꽃잎과 잎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唐代의 형식이 보인다. 唐後期 敦煌의 것인 경사를 변형시켜 꽃을 날염하여 테이블 보로 사용한 모란문은 추상적이지만, 대칭적인 점이 唐代의 문양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 2. 宋代

### (1) 陶磁에 나타난 모란문양

宋代는 특히 磁器가 발달하고 생산되었던 시기로 그에 사용되었던 문양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花唐草문양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蓼唐草라 불린 형식으로 明에 이르기까지 단순하고 변화된 형태로 되었다. 또한 잎은 그 특징만을 강조하였으며 꽃잎은 다양하게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초기인 12, 13세기에는 그려서 장식하는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려 넣는 문양보다 오히려 軸藥의 색이나 器形의 아름다움을 우선으로 여기던 시기이다<sup>46)</sup>. 그런 이유로 이 시기의 문양은 대체로 도안화되고,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어떤 사실적인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문양이 갖는 이미지나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차차로 문양표현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변

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실재의 사물을 근거로 하여 도자에 표현하기에 이른다. 특히 금기기법에 의한 모란문양의 표현이 좀 더 세밀해지고 입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예로 北宋의 青磁牡丹唐草紋瓶과 青磁刻花牡丹紋瓶의 모란은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전지형으로 하여 꽃잎은 모란의 특성인 풍성함과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고, 잎은 변형된 형태로 보아는데 과장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青磁牡丹唐草紋盒의 모란은 역시 전지형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역시 꽃은 꽃잎의 수만 적어졌을 뿐 앞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牡丹文盤에 보이는 모란은 역시 같은 기법을 이용하였지만, 공간적 특성으로 절지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잎이 사실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그림 8).

또 한가지 모란의 표현형태는 白地黑搔刻梅瓶(I)<sup>47)</sup>에 보이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꽃의 형태는 커다란 봉오리 또는 포도송이를 연상시키며, 그 속에 날날의 꽃잎을 묘사하였고, 역시 白地黑搔刻梅瓶(II)에도 역시 포도송이 형태로 꽃잎을 표현하되 꽃술을 함께 넣은 것이다(그림 9).

이 외에 白地黑搔刻唐草文如意頭形枕과 白地黑搔刻梅瓶, 그리고 黑地白花枝文如意頭形枕에 보이



<그림 8> 宋代 陶磁牡丹文



<그림 9> 宋代 陶磁牡丹文

46) 三杉隆敏, 앞의 책, p.276

47) 명칭이 같기 때문에 편의상 I, II로 표기하였다.

는 모란도 위의 것과 유사한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이로써 宋代의 모란문양의 대표적인 형태는 꽃잎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커다란 포도송이 모양으로 나타낸 것과, 꽃잎을 비교적 실제의 모습을 근거로 풍성함을 강조하여 나타낸 것, 그리고 모란의 커다란 꽃모양이나 꽃잎모양의 특징만을 살려 간략하게 도안화한 형태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직물에 나타난 모란문양

宋代의 염직공에는 唐代와 유사하고, 강남일대는 北宋시기의 絲織工藝의 중심이었고, 南宋의 염직공 예 특징은 각지에 特殊產品이 있었다. 특히 宋代에는 자수에 의한 회화, 名人の 글을 직물에 표현하는 기술이 생겨 다양한 직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 北宋 지역에서 출토된 纏枝富貴蓮子紋綾의 도안은 복잡하지만, 寓意가 포함되어 있어 모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길상도안이 이미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보이는 모란은 꽃잎이 크고 여러 겹으로 묘사되어 있고 가운데 芯(芯)을 두어 상당히 사실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또한 黑色纏枝牡丹花紋紗의 모란도 역시 커다랗게 표현되어 있는데, 꽃잎 하나하나의 표현이 세밀하고, 잎은 약간 변형되었지만 갈라진 끝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다. 纏枝牡丹紋綾의 모란은 앞에 예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커다란 꽃과 芯(芯)이 있



(그림 10) 北宋 纏枝牡丹文綾

고, 잎모양도 실재의 모란과 상당히 유사하게 표현하였다(그림 10).

南宋의 경우 朱克柔의 刻絲牡丹圖는 정교한 緞織으로, 磁青色 바탕에 완전히 사생적으로 모란꽃 한 송이를 타파스트리 기법으로 찬것이다. 꽃 모양은 8 겹으로 피고 술은 중심에 들어있고, 잎 모양은 사실적인 複葉을 묘사하고 있다.

직물에 나타난 모란의 또 다른 특징은 도자기에 서 보이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많고(그림 11), 鴦鳳牡丹花紋(그림 12)에서 봉황의 꼬리도 역시 쌓아올린 형태로 표현하여 모란의 꽃잎과 연결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란의 꽃잎을 겹겹이 쌓아올린 듯한 묘사는 宋代 모란의 가장 큰 특징이다.

牡丹芙蓉紋羅<sup>48)</sup>과 芙蓉葉織梅文羅의 모란은 사실적이고 유연한 모습이며, 여기에 꽃술이 표현되어 있어 더욱 실재와 비슷한 형태이다. 또 牡丹花芯織蓮文羅摹文의 모란은 앞에 예를 든 것보다 생략되고 도안화된 형태이며, 牡丹花綾摹文에는 꽃잎의 형태를 중심으로 모란을 간략화 시켜서 표현하였다. 南宋의 직물문양에 보이는 특징은 모란의 잎이나 꽃술부분에 연꽃이나 매화 등 다른 문양을 넣은 점이다(그림 11).



(그림 11) 宋代 牡丹芙蓉紋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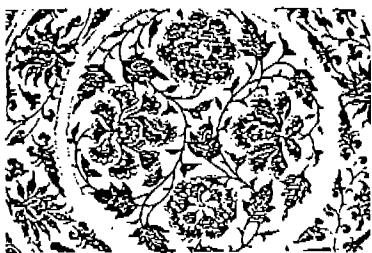
### 3. 元代

#### (1) 陶磁에 나타난 모란문양

元代는 추상적인 경향의 宋代와 사실적인 경향을 갖는 명의 초기와의 사이에 끼워진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추상에서 사실에의 과도기였기 때문에 추상적·상징적인 도안에서 원앙이나 연화·대나무 등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모티브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14세기에 완성된 양식을 갖게 된 青花磁器 즉 청색문양을 갖는 자기에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양의 종류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모란 문양이 자주 발견된다. 元代의 모란은 寶相華系의 것으로 장식적이면서 사생적이고, 섬세하고 화려한 특색을 갖는다.

이 시대의 특징은 前代에 비해 가늘고 복잡한 花形의 양식을 보이는 것인데, 青花雙耳壺, 青花牡丹唐草文盤, 青花牡丹唐草文梅瓶과 青花魚藻壺의 모란은 正·側·後面를 당초로 연결시켜 나란히 표현해 놓은 것으로 대표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그림 13).正面의 경우는 모란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게 실재적으로 표현하였다. 측면의 것은 꽃을 세로로 잘라서 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겹겹의 꽃잎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보상화와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는데, 정면의 것에서는 볼 수 없는 꽃술이 보인다. 후면의 경우는 꽃을 밑에서 올려다보았을 때를 그린 듯한 것으로 꽃받침과 꽃잎을 사실적으



(그림 13) 青花牡丹唐草文盤(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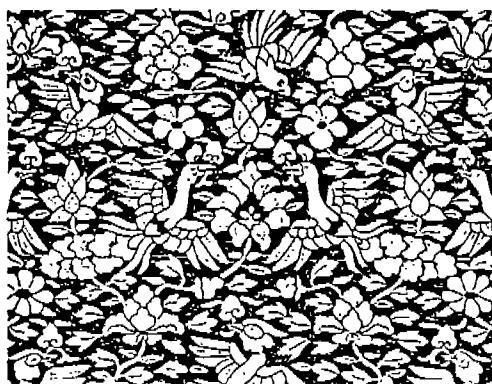
로 표현하였다.

元末의 것인 赤繪罐의 모란도 青·白磁의 것과 같이 날날의 꽃잎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가지며 표현되어 있다.

#### (2) 직물에 나타난 모란문양

이 시기는 중국 전통의 漢族이 아닌 이민족의 통치기간이었기 때문인지 모란이 문양으로 이용된 예를 많이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해져 내려오는 유품도 많지 않다.

그러나 元代에는 직물에 금을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 모든 비단직물은 금을 이용하여 쇄금·箔金·鍍金·織金·泥金·卷金·粘金 등 사용방법에 따라 명칭이 나뉘어졌다<sup>49)</sup>. 이 시기에는 前 시대의 특징이었던 쌓아올린 듯한 형태나 사실적인 형태는 사라지고 크기를 강조한 듯한 추상적인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된다(그림 14).



(그림 12) 蕪鳳牡丹花紋



(그림 14) 元代 纏枝牡丹文(부분)

48) 紹良云 편저, 「中國歷代絲綢文樣」, 紡織工業出版社, 1988

49) 紹良云 편저, 「中國歷代絲綢文樣」, 紡織工業出版社, 1988



(그림 15) 青花 鉢



(그림 16) 法花 壺

#### 4. 明代

##### (1) 陶磁에 나타난 모란문양

15세기초의 문양은 사실적인 것이 많아, 陶磁·漆器에 變形唐草文이 주가 되고, 따라서 전시대에 비해 점차로 정교하면서 지나치게 기교적인 형태로 변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는 明代의 磁器가 형태나 의장이 복잡하고 화려한 형태를 갖게 됨에 따른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되었던 문양도 동·식물 뿐 아니라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 되어 바위나 물 등도 사용되었고, 이를 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중 모란은 사실적이 고도 간략화 된 모습으로 굽고 힘있게 표현되었다.

鐵锈花牡丹瓶에서의 모란은 宋의 영향이 남아있는 듯하지만, 꽃잎과 잎의 형태가 略化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折枝花紋盤에는 여러 장의 꽃잎과 점으로 찍은 듯한 잎의 형태가 모란의 특징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青花鉢(I)이나 青花洗의 경우에는 꽃이나 잎 모두 사실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그림 15), 法花壺(그림 16)와 法花梅瓶의 모란도 그림을 그린 듯 사생적으로 꽃도 잎도 모두 실재의 모습으로 공작과 함께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明末에 이르러서 青花 蜜柑水指와 青花鉢(II)의 모란은 모두 錦鷄와 함께 겹꽃잎만을 강조하고, 잎은 단순하게 특성만 살린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즉 明代의 모란은 초기에는 宋의 영향을 받은 듯 겹겹이 쌓아올린 듯한 형태로 표현되었고 차차

사실적인 모습으로, 다시 특성만을 강조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 (2) 칙물에 나타난 모란문양

明代에는 차수를 전문으로 하는 집안이 생길 만큼 차수가 크게 발달하였고, 또 칙물에 문양을 직접 짜 넣는 地紋형태가 많은데, 중국 全時代에 걸쳐 가장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즉 모란을 그대로 옮긴 듯한 사실적인 형태부터 가장 간단한 도안화된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표현방법이 사용되었다. 明代에 사용되었던 모란문양은 唐의 의장형식에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점이 많은데, 겹쳐진 꽃잎과 갈라진 잎새 등 사실적인 묘사가 많고, 출기는 주로 唐草式인 넝쿨처럼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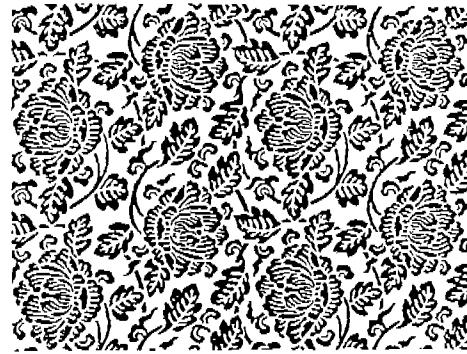
牡丹花綢의 모란은 꽃잎을 중심으로 표현하였고, 蓮文錦地絲에는 당초로 연결되어 실재적인 모습으로 되어있다. 牡丹文加金錦의 모란은 겹꽃잎을 과장시켜 표현하였고, 纏枝牡丹文織金錦에는 唐代의 보상화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紅地加金如意牡丹文과 纏枝牡丹菊花文改机에는 모란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안화되어 있지만 잎이나 꽃잎의 형태로 모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 明代의 모란문양은 초기에는 元의 것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어(그림 17) 형태가 추상화된 모습을 띠고 있고, 그 후에는 모란의 형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사실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그림



(그림 17) 繡枝牡丹文



(그림 18) 牡丹花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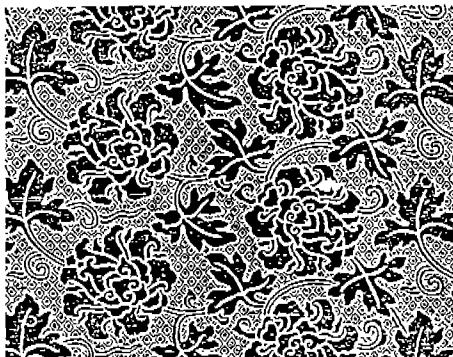
18), 또한 변형된 형태로 唐代부터 형성된 보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보인다(그림 19). 이 외에도 완전하게 도안화된 형태로도 표현하기도 하였다.(그림 20).

## 5. 清 代

이 시기는 문양에 寓意적 성격을 부여하였는데, 모란이 갖는 부귀라는 의미와 꽃병이나 나비, 또는 돌등의 자연물이 갖는 의미를 결합시켜 인간의 立身이나 長壽, 平安 등 인간의 심리적 욕구나 기원을 추구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1) 陶磁에 나타난 모란문양

粉彩나 灰彩형식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 清代의 陶磁는 역시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꽃 문양이 사용되었는데, 작은 문양들은 많이 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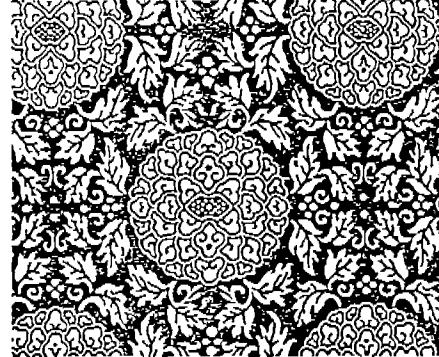
(그림 19) 牡丹花紋

지고 花鳥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색상도 모든 사물의 색을 그대로 살리는 등 화려하고 사실적인 회화풍의 묘사가 많이 사용되었다(그림 21). 이러한 가운데 모란은 화려하고 연약한 분위기를 갖게 되어 전시대의 웅장함을 잊고 있다.

黃地琺琅彩牡丹唐草文碗에 표현된 모란도 清代의 특징인 사실적인 형태이지만, 여기에서는 꽃잎이 힘있고 커다랗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黃地素三彩瓶과 五彩瓶에는 여러 가지의 꽃과 새 종류가 한 곳에 모두 표현된 형태이다. 여기에 나타난 모란은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清代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되는 가운데 모란은 화려하고 연약한 분위기를 갖게 되어 前時代의 특성인 웅장함을 잊고 있다.

清代에는 磁鄉이 발달하여 이를 이용한 磁器들이



(그림 20) 繡枝牡丹文



(그림 21) 五彩 瓶(部分)

많이 생산되었는데, 琥珀牡丹杯와 琥珀花卉碗 등에 사용된 모란 문양도 역시 다른 자기에 표현된 것과 같이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나타내었다.

#### (2) 직물에 나타난 모란문양

清代 직물의 모란문양은 사실적인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나비와 함께 겹겹의 꽃잎과 과여 들어간 잎새모양을 그대로 표현해 놓았다(그림 22).

折枝花卉蝴蝶加金綵에는 겹꽃잎을 크게 강조한 색색의 모란과 나비, 돌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고, 緑地鳳雀牡丹文織金錦에도 봉황과 함께 모란이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봉황이나 나비가 함께 배치된 도안은 袍(織金綵袷袍, 花綵袷袍, 花綵棉袍)나 袷(天華錦祫, 牝花綵女祫), 衿(花綵袷襟) 등에 사용된 것으로, 袍의 앞·뒤·밑단·양어깨에 團花형식으로 구성하여 자수나 地文



(그림 22) 清代 藍地牡丹綵(部分)

으로 나타냈다.

여기에서 모란은 겹쳐진 꽃잎이나 과여 들어간 잎새 등 실재의 모습을 토대로 하여 과장되고 추상화된 듯한 형태로 조화를 이루어 나타내었다. 또한清代 모란문양의 특징은 團花형식을 많이 띠는데, 圓안에 꽃과 다른 상징물들을 배치하는 형식을 갖는다(그림 23).

#### 5. 도자기와 직물에 나타난 모란문양의 비교

전체적으로 볼 때 모란문양은 사실적인 형태와 추상화·도안화된 형태로 크게 구별될 뿐 施紋대상에 따른 차이점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자기에 施紋된 모란은 공간적 제한 때문에 주로 纏枝形으로 많이 나타나고, 직물의 경우는 纏枝形과 折枝形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



(그림 23) 清代牡丹文圖案

다. 다만 明代에는 다양한 문양과 함께 표현됨에 따라, 그리고 清代에는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함에 따라 절지형의 모란문양도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특히 清代에는 도자기의 경우 그 표현이 사실적이고 회화적이었으며, 직물에 사용된 모란문양은 도안화한 형태로 표현된 예가 많았고, 자수를 이용하여 나타난 모란은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전통문양인 모란문양이 陶磁와 직

<표 1> 도자기와 직물에 나타난 모란문양의 비교

대상 시대	도자기	직물
唐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시기는 모란의 특성을 살려 花잎의 수와 형태, 그리고 잎의 형태를 자세히 묘사</li> <li>◎꽃잎의 수는 사실적으로 하되 그 형태는 단순, 변형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실적인 묘사-겹쳐진 꽃잎, 위에서 본 듯한 꽃잎, 그리고 파여 들어간 잎 모양</li> <li>◎추상적인 도안-대칭적 배치</li> </ul>
宋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안적·추상적- 사실적인 것을 나타내기보다 그 문양이 갖는 이미지나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宋-사실적이면서도 복잡하고 과장된 표현 사용 -寓意가 포함, 길상도안의 유행을 추측</li> <li>◎南宋-도자기의 문양과 비슷한 형태 사용 -겹겹이 쌓아올린 듯한 모습이 가장 큰 특징</li> </ul>
元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寶相華系列로 장식적·寫生적, 섬세·화려한 특색</li> <li>◎前代에 비해 가늘고 복잡한 花形이 특징</li> <li>◎正·側·後面의 묘사가 자주 발견-측면형은 보상화계의 모습과 유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상적인 형태-전 시대의 특징인 쌓아올린, 혹은 사실적인 형태 대신 크기만을 강조</li> </ul>
明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실적인 표현이 많다</li> <li>◎前時代에 비해 정교·기교적인 형태로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唐의 意匠형식 계승-사실적인 묘사: 겹쳐진 꽃잎과 갈라진 잎새 등</li> <li>◎추상적 표현-元의 것과 유사한 형태</li> <li>◎사실적 표현-모란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묘사</li> <li>◎도안화 된 형태-형태적 특성만을 강조하여 묘사</li> </ul>
清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은 문양이 사라지고 花鳥가 성행</li> <li>◎사물의 색을 그대로 살려 화려하고 사실적인 회화풍으로 묘사</li> <li>◎모란은 화려하되 연약한 분위기로 변하여 이전의 응장함 소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寓意적 성격·주술적 의미 부여 -모란의 부귀의미와 다른 사물의 의미를 결합, 인간의 욕구나 기원을 추구</li> <li>◎사실적인 형태-겹겹의 꽃잎과 파여 들어간 잎새 표현</li> <li>◎추상화된 표현-실재의 모습을 토대로 과장된 형태</li> <li>◎圓花형식- 圓안에 꽃과 다른 상징물들을 배치</li> </ul>

셋째, 문양으로서의 모란은 크게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 ① 모란꽃이 문양으로 사용되기 이전시대에 쓰였던 보상화문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데, 보상화문의 형상에 모란의 특성을 살린 사실적인 형태로 사용되었고,
- ② 실재의 모란꽃 형태를 그대로 묘사하는 사생적인 방법으로 여덟 겹의 꽃잎과 독특한 잎새, 그리고 잎맥을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 ③ 모란꽃의 크고 화려한 특성을 강조하여 여러 겹의 꽃잎을 겹겹이 풍성하게 과장된 듯한 형태로 표현하거나 또는 마치 커다란 별집모양으로 묘사하고, 여기에 잎새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 ④ 겹꽃잎인 모란꽃잎의 특징만을 살려 약화시킨 도안형태로 표현한 것 등이다.

넷째, 도자에 표현된 모란문양의 시대별 특징은 唐代는 모란의 특성을 강조하여 꽃잎과 잎의 형태를 자세히 묘사하였다.

宋代에는 사실적인 표현보다 그 문양이 갖는 이미지나 상징적인 의미를 취하여 도안화·추상화하였다. 元代의 모란문양은 實相華系의 특성을 갖게 되어 장식적이고 寫生적으로 변화하여 섬세하고 화려한 느낌을 강조한다. 또한 正·側·後面의 묘사가 자주 발견되는데 이 가운데 측면형은 唐代의 보상화계의 모습과 유사하다.

明代의 모란은 사실적인 표현이 많고, 前時代에 비해 정교하고 기교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清代에는 작은 문양이 사라지고 花鳥가 성행하여 모란과 다른 동·식물이 같이 조합되는 예가 많다. 또한 사물의 색을 그대로 살려 사실적인 회화풍으로 묘사함에 따라 모란은 화려하지만 연약하게 되고 웅장함이 사라지게 된다.

복식에서의 모란은 瓶花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직물에서는 地紋이나 자수로 표현된다. 직물에서의 시대에 따른 특징은 唐代는 사실적인 묘사가 대표

적인 것으로 겹쳐진 꽃잎, 파여 들어간 잎새모양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宋代의 모란은 도자기에 施紋된 것과 비슷한 형태인 겹겹이 쌓아올린 듯한 형태로, 사실적이면서도 과장되게 표현하였고, 여기에寓意가 포함되었다.

元代에는 宋代의 형식은 사라지고 추상적인 형태로 크기를 강조하며, 明代에는 唐의 意匠형식을 계승한 듯 사실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때로는 도안화된 형식으로 모란의 형태적 특성만을 강조한 경우도 보인다.

清代에는 문양이 寓意적 성격 혹은 주술적 의미를 부여하여, 모란과 다른 사물을 조합시켜 인간의 욕구나 기원을 담았다. 문양은 겹꽃잎과 잎새 등을 사실적으로 나타냈고, 圓안에 꽃과 다른 상징물들을 함께 배치하는 團花형식으로 표현이 많다.

이상은 중국의 모란문양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로, 중국전통 문양의 하나인 모란문양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화·도안화된 형태로, 혹은 섬세하고 사실적인 형태로 표현되며 모란의 특징인 화려함과 풍성함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가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부귀추구는 시대와 관계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부귀라는 상징을 지닌 모란은 당대 이후 끊임없이 등장하고 변형되어 사용되어 온 문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이 오늘날의 문양 디자인 개발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三才圖會』, 成文出版社:台北, 1970
- 2) 嚴雲鶴 編, 『事物異名典林』, 全省各大書局, 1973
- 3) 李學英, 舒彤 編, 『中國傳統圖案賞析』河北美術出版社, 1992
- 4)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1958

- 5) 中野徹・小川忠博,『展開寫眞による中國の文様』,平凡社, 1985
- 6) 野崎誠近, 변영섭·안영길 옮김,『中國吉祥圖案』, 도서출판 藝耕, 1992
- 7) 度邊素舟,『東洋文様史』, 富山房, 1975
- 8) 王孝廉,『花與花神』, 學苑出版社, 1994
- 9) 中村公一,『中國の花ことば』, 岩崎美術社, 1988
- 10) 華梅,『中國服裝史』, 天津人民美術出版社, 1989
- 11) 李祖定,『中國傳統吉祥圖案』, 上海科學普及出版社, 1989
- 12) 林良一,『東洋美術の裝飾文様』-植物文篇-, 同朋舍出版, 1992
- 13) 小杉一雄,『中國文様史の研究 一般周時代爬蟲文様展開の系譜』, 新樹社, 1959
- 14) 오은지, 우리나라와 중국의 복식상에 나타난 문양과 자수의 비교연구 -조선, 명, 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 15) 이영란, 목단문양에 대한 고찰-조선조 공예품으로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16) 高春明,『中國服飾常用文樣考釋』, 한국복식 제 9 호, 단국대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91
- 17) 尚美社編輯部,『世界의 紋樣 II(中國)』, 尚美社, 1983
- 18) 李明仲,『營造法式』, 國學基本叢書, 臺灣商務印書館, 1925
- 19) 中國工商出版社編輯,『中國の文様』, 美乃美, 1981
- 20) 林良一,『シルクロード』, 美術出版社, 1962
- 21) 谷田閑次, 石山 彰,『服飾美學・服飾意匠學』, 光生館, 1983
- 22) 梅原末治,『漢代の植物文様に就いて』, 東洋史研究 第3卷 第2號, 1937
- 23) 長廣敏雄,『中國美術論集』, 講談社, 1984
- 24) 溝口三郎 編,『日本の美術』9, No.29 文様, 1968
- 25) 三杉隆敏,『海のシルクロード』-中國陶磁器の海上運輸と染付編年の研究-, 恒文社, 1976
- 26) 黃能馥·陳娟娟 編,『中國歷代裝飾文樣大典』, 中國旅游出版社, 1995
- 27) 吳淑生·田自秉,『中國染織史』, 上海人民出版社, 1986
- 28) 沈從文,『中國古代服飾研究(上)』,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 29) 김정숙, 분청사기 목단문양에 대하여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 30) 강순희, 조선시대 길상문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31) 김선원, 금박문양을 이용한 작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32) 박영진, 한국문양의 주제분류를 통한 변천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33) 안동숙, 이조시대 민예품에 나타난 목단문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34) 한은혜, 상징성을 중심으로 본 중국용단의 문양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35) 홍찬호, 분청사기 문양의 상징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36) 이순자, 목단문양에 대한 고찰-중국·한국·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vol.10, 1985
- 37) 繆良云 編著,『中國歷代絲綢文樣』, 紡織工業出版社, 1988
- 38) 李蒼彥 編,『中國吉祥圖案』, 萬里書店有限公司·輕工業出版社, 1988
- 39) 黃能馥 編,『中國美術全集』-工藝美術編 6, 印染織繡(上), 1985